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31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공기술과	담 당 자	• 과장 민풍식, 사무관 원정운, 주무관 박일훈 • ☎ (044) 201-4284, 4285, 4289
	항공운항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성운, 사무관 권시홍, 주무관 장여진 • ☎ (044) 201-4259, 4273, 4293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보잉 737NG 점검은 국제기준보다 강화하여 철저히 수행 중에 있습니다.”

< 관련 보도내용 (서울신문, 10.31.) >

◆ “‘동체균열’ 불안한데...국토부, 전면 중단 않고 전수조사 타령만” 이라는 제목으로 '19.10.30 정부-항공사 간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통해 이제야 전수 조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도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B737NG의 동체 연결부위 균열점검과 관련하여 제작국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(미국 FAA)이 발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적용중인 기준보다 강화하여 철저히 수행중입니다.

- 항공기는 설계·제작 이후, 운영 중에 발생하는 결함사례 등 문제점에 대하여 제작사 및 제작당국에서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검토를 통해 전 세계 운영자에 보완·개선을 위한 감항성 개선지시(AD)를 발행하고 있습니다.
 - * 감항성개선지시(Airworthiness Directive) : 항공기 등에 불안정한 상태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유자 등에게 검사, 교환, 수리 등을 지시하거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비행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지시

- 이번 737NG 항공기의 경우에도, 제작사(보잉) 및 제작당국(FAA)에서 기술검토를 거쳐 누적 비행횟수가 3만 이상인 항공기는 지난 10월

10일까지 우선 점검토록 하고,

- 누적비행횟수 22,600회~3만회 미만 항공기는 10.3일 이후 추가적인 1천 비행횟수 이전(약 5개월 이내)에 점검토록 AD를 발행하였습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3만 비행횟수 이상인 항공기(42대)에 대해 10월 10일 까지 점검을 완료하고, 그 결과 균열 발생 항공기 9대에 대하여는 운항중지 조치하였으며,

○ 22,600회~3만회 미만 항공기(22대)는 국내항공사에 미국 FAA 발행한 AD 기준(약 내년 2월말) 보다 강화하여 금년 11월 이내 점검을 마치도록 조치하였으며,

○ 22,600회 미만 항공기(86대)도 누적비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AD 상의 22,600회 도래 이전보다, 조속히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.

□ 향후 균열발생 항공기는 제작사 기술자문을 받아 수리 토록하고 수리 후에도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이행 완결성 등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운항을 재개토록 하여,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·감독할 예정입니다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항공기술과 원정윤 사무관(☎ 044-201-4285)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